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기를

전주시,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 개최... 27·28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입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 산하 직원 및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시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이어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전주시 직장 및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전통시장들도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남부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로 남부시장 일원에서 영화상영 및 야외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며, 풍남문상점가와 중앙상가에서는 각각 고객과 시장상인이 함께하는 가요제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로비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행사를 가졌다.

또한, 신중암시장에서는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퐁퐁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남부시장과 풍남문상점가에서는 시장 내 상품으로 구성된 명절선물세트를 특가로 판매하는 행사도 전개한다.

이에 대해,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부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면서도 큰 역할"이라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북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김민근 기자

'차 없는 도시' 혁명 주인공 전주 온다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 '세계슬로포럼&어워드' 사례발표

차 없는 도시로 알려진 스페인 폰테베드라시의 미구엘 로레스(Miguel arxo Fernandez Lores) 시장이 전주를 찾는다.

폰테베드라시는 도심에서 차를 몰아내고 도로를 시민들의 산책 공간과 휴식공간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부활한 혁신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구엘 로레스 시장의 전주 방문은 오는 11월 1일부터 개최될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계기로 이루어지게 됐다. 지난해 슬로시티 벤치마킹 차 폰테베드라시에 들른 김승수 시장은 '차 없는 도시'라는 혁명을 이루어낸 폰테베드라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슬로포럼에 초청함으로써 전주 방문이 성사됐다.

전주시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자동차보다 사람, 콘크리트보다 녹색생태, 직선보다 곡선'을 추구하는 전주시의 도시철학을 실현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국제대회다. 미구엘 로레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과 시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로 이루어낸

'차 없는 도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슬로어워드'의 경우 슬로시티의 철학과 목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추천을 거쳐 국제슬로시티연맹 및 관계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은 국제부문(단체, 개인), 국내부문(단체, 개인)이며, 현재 폰테베드라시를 포함한 다수의 단체·개인 후보가 물망에 올라 있다.

'슬로,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슬로운동의 선구자이자 TED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칼 오너리(영국)와 인간사회의 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다뤄멘터리를 제작한 플로리안 오퍼츠(독일)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사오 엔 령(대만, 풍년 시장), 아놀드 로덴버그(네덜란드, 델플란트 시장), 사이토 무츠미(일본, NPO이사), 민홍철(국회의원), 김인자(한국슬로시티연구회 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전주향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초등생 성추행 40대 배달원 징유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배달원에 징유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징유에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평소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자주 찾아오던 초등생 B양을 만나 "태워주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선 앞에 앉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김생기,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정읍시장)

광주고법, 김 시장·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정성 훼손·처벌 전력 있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3일 모 산악회에 참석해 산악회 회원 33명에게 정읍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다음날인 지난해 3월 14일

에 정읍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35명에게 하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김 시장은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지지 호소는 안 했고 참석자들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 단원들이 점,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시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고해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삼민 기자

완산구 아파트 상습 절도 20대 붙잡혀

완산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 절도한 20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5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 초부터 6차례에 걸쳐 완산구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모두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저녁시간에 사람이 없는 세대만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피해 다니기 위해 벽을 넘어다니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중고차를 사고 유류비에 탕진했다. /이삼민 기자

경찰은 A씨에게 장물을 산 업자들이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교회 기증도서 훔친 60대 입건

버려진 책인 줄 알고 교회 기증도서를 훔쳐 고물상에 판 60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15일 절도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 출입문에 보관중이던 200만원 상당의 책 200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서들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교인들이 기증한 책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입문에 쌓여 있던 도서들이 버리기 위해 내놓은 것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삼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